

토요일은 광주가 좋다... 금남로에 문화꽃 활짝



2017 프린지 페스티벌 화려한 개막 ... 차없는 거리 젊음의 축제

‘음빛고을거리’ 버스킹 공연 ... ‘오매! 밥상’ 등 프로그램 다채

도심 한복판, 금남로 500m 차 없는 거리에 문화꽃이 활짝 피었다. 가족, 친구들과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은 다양한 문화를 즐기며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다.

‘2017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 현장은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어우러지면서 시민 모두가 주인공이 됐다. 또 축제에서 만든 다양한 먹거리, 아트 상품, 베품시장 등도 큰 호응을 얻었다.

‘2017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매주 토요일 오후 2시~7시) 첫 행사가 지난 22일 금남로, 5·18 민주광장 일원에서 열렸다. 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 인근 나눔광장에서는 버스킹 공연 ‘음빛고을거리’(매주 토요일 오후 3시~6시)가 열려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2016 프린지페스티벌 작품상 수상작인 축하공연 ‘임을 위한 몸짓’, 광주를 다양한 색으로 물들이는 개막선언 퍼포먼스에 이어 주제공연 ‘황홀한 변신’과 다채로운 체험·거리 공연 등을 선보이며 참가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거리 6개 공간에 마련된 무대에서는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다. 야외소설브랜드 공연 비상무용단의 ‘난장’, 극단 파랑새의 ‘물의 요정 방울이’, 극단 연우랑 ‘토생외전’, 아프리카 타악그룹 ‘아나코’의 ‘아프리카 리듬과 열정’ 등은 관객들의 흥미를 돋웠다.

여기에 청년들이 함께한 플라마켓 ‘와따마켓’, ‘오매! 평화로운 밥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 ‘광주엄마가 달린

다’ 등도 눈길을 끌었으며 5·18 광장에 세워진 ‘프리덤 씨어터’에서는 코믹쇼 ‘클라운진’, ‘팁 퍼니스트’의 공연이 펼쳐졌다.

그밖에 마임 공연 ‘인어를 사랑한 해적’은 시민들의 기념 사진 촬영이 이어졌으며 뺨에로 풍선 마음, 오매댄스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잇따랐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만날 수 있는

‘음빛고을거리’ 행사는 여성 3인조 일렉트릭그룹인 ‘미켈’의 멋진 퍼포먼스와 연주로 문을 열었다. 이어 발라드 음악을 들려준 그룹 ‘Dubble Clip’, 광주대 보컬 동아리 ‘센슈얼’과 ‘디아타’가 많은 이들에게 친숙한 대중가요를 선사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화려한 기교를 뽐내는 연주도 이어졌다. 어쿠스틱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 정

윤준이 무대를 이어갔으며 이날 마지막 무대는 4인조 여성 그룹 ‘여우벌 밴드’가 장식했다.

‘슈퍼스타 k6’에 출연, 많은 사랑을 받았던 팝밴드 출신 그룹 ‘여우벌 밴드’는 이날 이선희의 ‘아 옛날이여’, 샌드패블스의 ‘나 어떻게’를 자신들만의 감각으로 새롭게 편곡, 다양한 노래를 들려줬다. ‘여대 앞에 사는 남자’, ‘Bye Summer’ 등 히트곡도 연주했다. 여우벌 밴드는 관객들에게 장미꽃과 ‘여우벌 밴드’ 사인 CD도 선물하기도 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22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나눔 광장에서 열린 ‘2017 음빛고을거리’ 행사에서 ‘여우벌 밴드’가 공연을 펼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제 62회 호남예술제 피아노 초등부 입상자 명단

〈심사위원〉 박행숙 (목포대 교수) 허정화 (순천대 교수) 홍경자 (전주기전대 교수) 이훈진 (세한대 교수) 선수정 (서울대 출강)	7 박예원(2005년생) 18 조영효(조봉초6) 28 조민성(고실초6) 36 윤지우(조봉초5) 48 이신영(광주동운초6) 58 이민교(태봉초6) 66 김현진(목포부주초6) 75 이윤솔(태봉초6) 82 서희원(목포영산초5) 87 황수홍(수문초5) 92 김민서(목포부주초5)	18 한규민(대자초4) 29 김나운(군산진포초4) 34 남여울(목포영산초3) 48 박가인(목포영산초4) ▲은상 14 이다빈(광림초4) 17 고나은(문흥초3) 19 이연우(큰별초4) 26 오대철(오정초4) 30 김연수(목포영산초3) 32 정세아(효덕초4) 42 나지연(목포영산초4) 66 김세중(수문초3) 68 정혜린(송정초4) 73 조하은(태봉초4) 75 김혜원(대반초4) ▲동상 2 김세린(일동초4) 16 조승효(조봉초3) 23 김성현(나주빛가람초4) 37 장수영(영암학산초4) 41 박기주(효덕초4) 43 이진호(조봉초4) 44 김영재(광주농성초4) 52 이은수(광주농성초4) 53 백진우(광주남초4) 60 이아린(효덕초4) 61 박규린(선창초4) 71 이지율(광주송원초4) 82 박수현(태봉초3) 83 이준범(봉산초4) 84 곽승우(광주송원초4) 89 김민찬(태봉초4)
------------------------------------------------------------------------------------------	---------------------------------------------------------------------------------------------------------------------------------------------------------------------------------------	---------------------------------------------------------------------------------------------------------------------------------------------------------------------------------------------------------------------------------------------------------------------------------------------------------------------------------------------------------------------------------------------------------------------------------------------------------------------------------------------------------------------------------------------------

◇초등부 1.2학년
▲최고상
1 정연우(문정초2)
▲금상
22 임예준(태봉초2)
31 김하빈(조봉초2)
▲은상
20 김성겸(조봉초2)
25 김기은(운천초2)
32 김예은(태봉초2)
36 윤수원(영암독천초2)
▲동상
7 홍재리(조봉초2)
14 박현주(동명초2)
17 김주홍(목포미항초2)
18 이지혜(태봉초2)
21 김연주(광주학운초1)
23 마은별(동명초2)
26 신예희(양지초2)
34 이예서(동명초2)
37 황서연(목포영산초2)

◇초등부 5.6학년
▲최고상
49 이지희(전주서일초6)
▲금상
16 진호영(지평초6)
45 장은서(큰별초5)
65 황다은(태봉초6)
70 김보경(순천왕지초6)
76 이슬비(목포항도초6)
89 한주원(태봉초5)
▲은상

◇초등부 3.4학년
▲최고상
72 허소율(순천하늘샘국제기독교초4)
▲금상

* 장려상 입상자는 호남예술제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계간 ‘시산맥’ 29일 시인들의 놀이마당

바자회·사인회 등 열어

시전문지 계간 ‘시산맥’(대표 문정영)이 시인들의 놀이마당을 마련한다. 시산맥 시회(회장 김필영)는 오는 29일 ‘꽃 피는 날에는 시산맥에 가야한다’ 주제로 바자회(오전 10시~오후 8시)를 서울 인사동 3길 열린이씨개마(대일빌딩)에서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창작 충전의 기회를 갖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문장 노동자를 위한 화전 놀이’를 주제로 등산동아리 김혜천 시인 등이 직접 체험을 하고, 이어 ‘자작 시 도자기 세기’ 시간에는 시인인 한 춘화 도예가 지도로 시를 도자기에 새

기는 행사를 갖는다. 시 한행을 적어오는 회원(선착순 48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오후 4시부터는 본 행사인 시산맥 시집 발간 사인회가 열린다. 김필영 회장 인사말을 시작으로 시집(2016년 12월 이후) 발간자에 대한 축하 선물이 증정된다. 작품집 발간 시인은 다음과 같다.

송문문(‘그림에도 불구하고 써’), 홍애니(‘브리타니아 들뜬에서 늦은 디너를’), 홍문식(‘사에 이르는 길’), 이진수(‘달이 사는 밤’), 김신영(‘맹발의 99만보’), 박성희(‘풍영이 날개로 지구를 돌다’), 김상률(‘공중이 풍류, 팔중이 팔팔’), 문의 010-8894-8722.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문학’ 범호 발행 ... “광주문학관 빨리 건립돼야”

광주가 아시아의 퍼블릭, 아시아문화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문학관 건립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광주문학관과 작가회의는 물론 각 문학 장르 협회 그리고 학계, 광주시, 언론계 등이 한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대두됐다.

이 같은 주장은 최근에 발간된 광주문학 협 기관지 ‘광주문학’ 범호(82·한림)에서 제기됐다. 광주문학은 특집1로 ‘광주문학관 건립을 위한 특별좌담회’를 개최해 광주문학인들의 숙원인 문학관 건립에

대해 논의를 했다.

2017년 기준 한국문학관협회에 소속된 문학관은 전국에 70여 개에 이른다. 전남에는 목포문학관, 순천문학관, 곡성 조태일문학관, 강진 시문학파기념관, 보성 태백산맥문학관, 담양 한국가사문학관 등이 있다. 그러나 예향이자 문향(文鄕)인 광주는 대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문학관이 없는 도시다.

손광은 시인(전남대 국문과 명예교수)은 “새롭게 꾸러진 문인협회 집행부가 사명감을 갖고 문학관 건립에 주도적

으로 나서야 한다”며 “문학관 명칭은 전국적으로 브랜드화된 지명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남진 시인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문학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광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추진위원회의 활동 보장, 광주시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집 II에서는 제29회 광주문학상 수상자인 김정·박관석 시인과 이인우 시조시인, 박용수 수필가 등의 수상소감과

작품을 소개했다. 또한 제9회 올해의 작품상 수상자인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 안영욱 동화작가의 수상소감과 신작 ‘달마루에 사는 나무’도 실었다.

특집 III에서는 ‘분과위원장’에 듣는 ‘다’는 코너를 마련해 이태웅(시), 이구학(소설), 박정식(아동), 임인택(수필), 이희규(희곡), 김숙희(낭송) 회원의 포부를 수록했다. 이밖에 강만 시인의 시, 문제완 시조시인의 시조, 김현옥 아동문학가의 동시, 고병권 수필가의 수필, 신동균 작가의 소설, 배수인·윤삼현 평론가의 계간평 등 회원들의 작품이 소개됐다.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미르샘메디컬센터 | 임대분양
나주 대표 랜드마크형빌딩

나주의 중심심장부에 건립된, 최초 메디컬센터 5월 입주임박!
시외버스터미널~남고문을 잇는 중심상권에 위치한 최고의 입지!

1 767㎡ | 약국입점확정, 커피전문점, 편의점, 이동통신대리점, 브랜드의류, 죽전문점, 대형전시장
2~5 794㎡ | 이비인후과, 내과, 피부과, 정형외과, 통증의학과, 신경외과, 가정의학과 등 전문병의원 환영
6 743㎡ | 전문병의원 및 피부 레스토링 등 대형연회장 환영

친철상담 | 첨단길잡이 공인중개사사무소 (광산구, 대표 이현민)
062-972-8845 · 010-3635-5800

치평동 상가 매매

- 상무나이트 옆 수림상가
- 10층 중 10층 795㎡(250평)
- 임대가(5000만/350만)
- 감정/시세 8억 7700만
- 급매 7억 7000만

봉선동 아파트 매매

- 봉선동 포스코 아파트
- 17층 111㎡(33평)
- 교육환경 최상
- 시세 4억 3000만
- 매매 4억 1500만

수기동 오피스텔 매매

- 수기동 23-2번지 제일오피스텔
- 19층 95㎡(28평)
- 임대중(400만/월 47만)
- 수익률 12% 이상
- 매매 5900만

문의 010-9203-6161